

한시에 나타난 노부부의 형상*

— 늙은 아내를 중심으로 —

박동욱**

〈차 례〉

1. 서론
2. 부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
3. 노부부에 대한 여러 풍경들
4. 결론

【국문초록】

노부부에 대한 이름 모를 감동은 그들이 살아 왔을 시간과 사건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다. 해로(僂老)는 함께 늙어갔다는 말이니, 그 자체가 그들의 성실과 인내를 증명한다. 주로 남편의 시선으로만 기록되었기에 노부부 전반에 대한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늙은 아내 곧, 노실(老室), 노처(老妻), 노부(老婦) 등을 다룬 시들을 통해 한시에 나타난 노부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작품 속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먼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속죄를 들 수 있다. 함께한 세월들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만족스러웠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월의 굽이굽이 모든 순간 같은 자리를 지켜준 배우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생과 노고에 대한 고마움이다. 무기력한 생활인의 태도는 아내와 자식들을 세상의 고초와 고난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보통 유배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기적으로 생일, 회갑, 회혼 때에 지어진 시들이 많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년도)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부교수 / 전자우편: sanwoon@hanmail.net

또, 아내를 향해 호기와 배짱을 보이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양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 변명과 자책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드러내며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슬픔이다. 중년 이후에 겪을 가장 큰 아픔으로는 상처(喪妻)가 손에 꼽힌다. 부부가 함께 지낸 세월이 길면 길수록 상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부모는 자식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기 마련이고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래도 끝까지 곁에 남아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다. 세월의 모든 성상(星霜)을 겪은 노부부의 모습은 그것 자체로 인생의 훌륭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죽음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노부부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주제어: 노부부, 부부, 아내, 상처(喪妻), 배우자

1. 서론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단위보다 기본이 되지만 가장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가까운 사이여서 예사롭게 무시하기도 쉽고 상처 받기도 쉽다. 가족 간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위로 받을 수 없기에 더욱 아프고, 가족 간의 사랑은 오직 가족끼리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서 더욱 따스하다. 누구나 가족들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역시 가족들로 인해 살 의미를 찾기도 한다. 가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변함없이 유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부는 유일하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족이며, 또 다른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가장 독특한 관계의 가족이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결별과 화합에서 문제가 그치지만, 부부는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의 행복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만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본인이 불행하더라도 자식을 위한 희생과 체념만으로 부부 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며 한평생을 소진할 수는 없다. 본인과 자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누구도 그 선택에 함부로 개입

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 주름의 깊이마저 닳아간 노부부가 있다. 노부부에 대한 이름 모를 감동은 그들이 살아 왔을 시간과 사건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다. 해로(偕老)는 함께 늙어갔다는 말이니, 그 자체가 그들의 성실과 인내를 증명한다. 그 옛날 가족에 대한 감정을 표시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대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표현된다. 제문, 묘지명, 만시 등에 국한되어 있어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로 남편의 시선으로만 기록되었기에 노부부 전반에 대한 글을 찾기도 쉽지 않다.¹⁾ 본고에서는 늙은 아내 곧, 노실(老室), 노처(老妻), 노부(老婦) 등을 다룬 시들을 통해 한시에 나타난 노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그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부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내 늙은 아내는

아침저녁으로

내 재떨이를 부시어다 주는데,

내가

야 이건 양귀비 얼굴보다 곱네

양귀비 얼굴엔 분때라도 묻었을 텐데 하면

꼭 대어섯 살 먹은 계집아이처럼

좋아라고 소리쳐 웃는다

1) 그간 고전에서 부부에 대한 논의를 다룬 책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종목(2011), 『부부』, 문학동네; 김경미(2012), 『家와 여성』, 여이연; 류정월(2014), 『선비의 아내 - 조선 여성들의 내밀한 결혼 생활기』, 역사의아침(위즈덤하우스); 줄고(2014), 『가족 - 세상에 다시없는 내편』, 태학사.

그대 나는
 천국이나 극락에 가더라도
 그녀와 함께
 가볼 생각이다

-서정주, 「내 늙은 아내」-

서정주는 이 시를 1998년 현대문학 1월호에 발표했다. 2년 뒤 부인 방옥숙 여사가 10월에 세상을 뜨자 곡기를 완전히 끊고 술로 연명하다가 두 달 후에 미당 역시 세상을 떠났다. 사소한 일상의 한 장면을 포착했는데 노부부의 깊은 사랑이 잘 드러난다. 노년의 녹진한 사랑은 김광균의 「木像」이나 황지우의 「늙은 아내에게」 등 많은 현대시에 남아 있다.²⁾

부부는 고사 속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진(晉)나라 대부 극결(郤缺)은 기읍(冀邑)에서 밭을 갈 때 아내가 들밥을 내왔는데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는 듯하여, 그것을 본 구계(臼季)가 돌아가 극결을 천거했다. 또, 한(漢)나라 양홍(梁鴻)은 부인인 맹광(孟光)과 같이 패릉산(霸陵山)에 들어가 농사짓고 베를 짜며 살았는데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예의가 있었다. 양홍이 집에 돌아오면 맹광이 밥상을 눈썹 높이만큼 받들어 올렸다는 거안제미(擧案齊眉) 고사는 특히 유명하다.

이밖에도 제(齊)나라 대부 기량(杞梁)이 전사(戰死)하자, 그 아내 맹강(孟姜)이 교외에서 상여를 맞이하는데 곡소리가 몹시 구슬퍼 듣는 이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성벽(城壁)이 그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고사나, 탁왕손(卓王孫)의 잔치에 초대받아 가서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거문고를 연주하며 노래하자 탁문군(卓文君)이 반하여 집을 나와 그의 아내가 된 일화는 유명하다.

2) 노부부를 다룬 작품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창작되었다. 그만큼 노부부라는 소재가 가지는 강렬함 때문이다. 가요로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영화로는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 감독의 도쿄 이야기(東京物語, 1953),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Amour, 2012),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2002),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 등이 인상적이고, 연극에도 역시 많은 작품들이 있다.

한 그루 늙은 버들 두어 서까래 집에
 머리 하얀 영감 할멈 둘이 다 쓸쓸하네
 석자가 아니 되는 시냇가 길 못 넘고서
 옥수수 가을바람 칠십 년 살았다오

禿柳一株屋數椽 翁婆白髮兩蕭然
 未過三尺溪邊路 玉躡西風七十年

길가의 마을 집이 옥수수 밭 가운데 있는데 두 늙은 영감 할멈이 오손도손 지낸다. 그래서 영감 나이가 몇이나 되었느냐 물었더니 일흔 살이라 한다. 서울에 올라갔었느냐 하니 일찍이 관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무얼 먹고 사는가 하고 물으니 옥수수를 먹는다고 했다. 나는 남북으로 떠다니며 비바람에 휘날리던 신세라 옳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망연자실하였다.³⁾

김정희, 「시골집의 벽에 쓰다(題村舍壁) 병서(並序)」

늙은 아내를 다룬 한시는 유배지에서 지어진 것이 많다.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크기만큼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동시에 커진다. 이즈음 추사는 초라한 집만 큼이나 추레하게 늙은 부부를 만나게 된다. 즐겁거나 행복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들은 추사의 예상 밖으로 별 탈 없이 살아간다. 먹을 것은 옥수수뿐이고 서울에 출입한 적도 없는 무지렁이들이다. 추사는 유배를 온 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할 즈음 어떤 욕망이나 권세도 침범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서 발견한다. 그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화려했던 자신의 삶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지혜를 얻었다.

[1]

연한 채소 밑에서 영감을 주고
 누룽지를 밥사발에 더 얹어 주네.

3) 路傍村屋，在躡黍中，兩翁婆熙熙自得。問翁年幾何，七十。上京否，未曾入官。何食，食躡黍。余於南北萍蓬，風雨飄搖，見翁聞翁語，不覺寤然自失。

영감이 추위를 못 견딜까봐

짧은 치마 찢어서 버선 만드네.

軟菜推與翁	焦飯益翁鉢
爲翁不耐寒	短裙裂作襪

[2]

농부의 살가죽은 검게 그을고

그 농부의 아낙은 맨발이로다.

늙고 추함 부부 서로 까맣게 잇고

밀수제비 만들어 함께 먹누나.

農夫皮肉皴	農婦赤跣足
老醜兩相忘	不托共一掬

[3]

늙은 아낙 한밤중에 길쌈 하다가

산 비 떨어지는 소리 먼저 듣고서,

“마당의 걸보리는 내 거둘 테니

영감께선 누워서 주무시구려”

老婦夜中績	先聞山雨始
庭麥吾且收	家翁不須起

이양연(李亮淵), 「늙은 시골 아내(村老婦)」

시골 노부부의 사랑을 정겹게 그려낸 작품이다. [1] 아내는 변변찮은 식사라도 살뜰하게 챙기고, 동상(凍傷)이라도 걸릴까 염려하여 자신이 입던 치마까지 찢어서 남편의 버선을 만들어 준다. [2] 남편은 거친 노동으로 피부가 검게 그을렸고, 아내는 맨발로 농사일을 했다. 육신은 늙고 추해졌지만 반면에 둘 사이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동지애가 싹텄다. 이렇게 입고 먹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활을 함께 한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 삶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극복 해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아내는 밤이 되어도 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느닷없이 비가 내리자 마당에 퍼둔 걸보리를 거두려고 일어나는 남편을 만류하며 대신 할 테니 잠을 청하라며 배려한다. 노부부가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늙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담은 시이다. 이 시를 쓸 때 산운의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노부부의 삶을 제시하면서 아내를 상실한 아픔을 달랬다.

머리 흰 부처는 고금에 드무나니
 빛나는 노인성(老人星) 두 옷깃을 비추네
 잔 들어 같은 해에 태어났음 축하하고
 수건 다니 옛 갑자가 돌아옴 즐겁네
 소반 과일 무르익어 선도의 유자 같고
 섬돌 꽃 향기로워 수천(壽泉)의 술에 영기었네
 검버섯 흰 머리로 팔십까지 해로하길 기약하니
 꽃다운 인연이 전생부터 깊었기 때문이네.

頭白夫妻罕古今	輝輝南宿映雙襟
稱觴堪賀同年降	懸帨方歡舊甲臨
盤果爛如仙島橘	階花香凝壽泉斟
梨顏蒜髮期偕耄	祇是芳緣夙世深

이덕무(李德懋), 『어떤 부부의 환갑을 축하함(賀人夫婦周甲)』

어떤 부부든 고비와 시련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견디어 나간다면 오히려 부부 사이는 그전보다 단단한 합일과 결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부부를 축하하는 환갑이나 회혼예(回婚禮)를 다룬 시들이 많다. 거기에는 노부부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으며, 자신의 부부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도 함께 가져다준다. 위의 시는 동갑내

기 부부의 환갑을 맞아 축수와 장수를 기원했다.

늙은 부부를 다룬 한시에는 기본적으로 경외와 찬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부부의 해로가 기본적인 상식이었던 전근대의 사회라 해도 정서적인 해로가 물리적 해로보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남명(南冥)이 말하기를, “평상시 지낼 때에 처자(妻子)와 함께 처해서는 안 된다. 비록 자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짐차 거기에 빠져서 결국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퇴계가 말하기를, “부부(夫婦)는 인륜의 지극함이고 온갖 복의 근원이다. 비록 지극히 친밀하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고 삼가야 할 관계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우하고 공경할 것을 잊어서 대변에 서로 지나치게 가깝게 되어 마침내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 처음을 삼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하략…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남명이나 퇴계 선생의 말을 빌려 부부 사이에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경계했다. 부부 사이가 지나치게 친밀하게 되면 진취적인 기상은 사그라지고 소시민적인 행복에 빠지게 되거나,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오히려 부부의 사이를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지금의 부부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다. 부부 사이란 가장 가까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글들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부가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반증이다.

…전략… 공씨(孔氏)는 3세(世)에 걸쳐서 아내를 쫓아내었고, 윤길보(尹吉甫)의 후처(後妻)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가지고도 제대로 감화시켜 유도(誘導)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겠는가?

원소(袁紹)는 호걸스러웠고 풍연(馮衍)은 강직하였는데도 투기(妬忌)하는 부인의 격정

거리를 모두 면하지 못했다. 광광(霍光)은 충직한 신하였는데도 음험한 그의 처가 사특한 꾀를 내었고, 왕도(王導)는 어진 재상이었는데도 사나운 처 때문에 기롱(譏弄)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처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어떤 이는 남의 대추를 먹게 했다(啖棗)고 해서 쫓아내었는데, 또 어떤 이는 개를 꾸짖었다(叱狗)고 해서 쫓아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심하게 했던 말인가?

우리나라는 사족(士族)의 여성이 개가(改嫁)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부(士夫) 또한 정처(正妻)를 버리는 것은 명교(名教)에서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비록 불량(不良)하더라도 이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것을 옛사람의 중도(中道)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합당하다고 하겠는가?⁴⁾…후략…

이식, 「夫婦」

다양한 부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공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의 집 안에서 벌어진 출처(出妻)의 사건과 훌륭한 재상의 전형으로 손꼽히는 윤길보의 아내가 보여준 악행을 들었다. 그리고 공자의 부친인 숙량홍(叔梁紇)과 공자의 아들인 백어(伯魚)와 백어의 아들인 자사(子思)가 모두 자기 아내를 쫓아낸 이른바 ‘공씨삼세출처(孔氏三世出妻)’의 고사와, 윤길보의 아들 백기(伯奇)가 계모의 참소를 받고 쫓겨난 뒤에 새벽에 서리를 밟으면서 ‘이상조(履霜操)’라는 금곡(琴曲)을 연주하고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고사를 제시했다. 둘째는 사나운 처를 쫓아내지 못한 경우이다. 원소의 아내는 시기가 심해 다섯 명의 첩을 죽였고, 풍연의 아내도 시기가 심해 절대로 첩을 두지 못하게 했다. 광광의 아내 광현(霍顯)은 막내딸을 귀하게 만들 요량으로 선제(宣帝)의 허후(許后)를 시해하고 광광이 죽은 뒤에는 감노(監奴)인 풍자도(馮子都)와 음란(淫亂)하게 놀았다. 왕도는 투기가 심한 아내를 두려워하여 첩들을 몰래 숨겨 놓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

4) …전략…孔氏三世黜妻, 尹吉甫後妻殺子, 聖賢之教, 亦不能化導, 何歟, 袁紹之雄豪, 馮衍之剛直, 而皆不免悍妬之患, 霍光忠臣也, 而陰妻邪謀, 王導賢相也, 而畏妻貽譏, 俱不能黜去, 何歟, 或以啖棗黜, 或以叱狗黜, 抑何其甚歟, 我國士族之女, 不得改適, 士夫疏棄正妻, 名教不容, 雖配耦不良, 而離異者絕少, 果合於古人之中道歟, …후략…

다. 셋째는 쫓아낼 만한 일도 아닌데 아내를 모질게 쫓아낸 경우이다. 왕길의 이웃집 대추나무가 자신의 집으로 넘어왔기에 그 대추를 따서 왕길에게 먹였더니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쫓아냈다. 포영은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는데 아내가 계모 앞에서 개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바로 쫓아냈다.

이식은 부부가 한 번 혼인을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헤어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며, 배우자의 처신 여부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천하에서 가장 민망히 여길 자는 빈한한 선비의 아내이다. 그러므로 그를 약한 나라의 신하에 비유한 것도 있다. 빈천할 때엔 그 수고로움을 같이하고, 부귀할 때엔 그 영화를 함께 누리어 은의(恩義)를 잃지 않고 해로하기를 약속하는 것이 가정에 상서로운 일이다.

세상에 못난 남자 중에는 사나운 부인에게 제압되어 꼼짝 못하는 자가 왕왕 있는데, 이것은 인륜(人倫)의 큰 변으로 왕법(王法)이 용서하지 못할 바이니, 능멸하고 구타하고 꾸짖는 등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사나운 부인은 으레 재기(才氣)가 많아서 생리(生利)를 잘 경영하므로, 그 남편이 그것을 의지하여 생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제압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꼼짝 못하게 되니, 어찌 가련하지 않은가?

이덕무(李德懋), 『사소절』

부부의 생활 윤리를 다룬 글들도 눈에 많이 띈다. 윤최식(尹最植)의 『일용지결(日用指訣)』이나 이양연의 『일일행사대략(一日行事大略)』 등에도 부부에 대한 내용에 일정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조강치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문제와 사나운 부인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사나운 부인이 갖고 있는 강한 생활력에 주목한 부분이 흥미롭고 인상적이다.

3. 노부부에 대한 여러 풍경들

1) 지나온 세월에 대한 속죄

…전략…

돌아보건대 당신 내게 시집 온 뒤에
 먹을 것 배 주리고 입을 것 몸 못 가렸네.
 아이 위해 물 길고 절구질 했고
 어른 위해 시부모 봉양 하였네.
 있고 없는 것 따지느라 속셈으로 괴로워서,
 겨우 서른 넘어서는 곱던 얼굴 시들었네.
 게다가 남편이 남 사귀기 좋아해서
 일 년이면 집구석에 한 달도 없었다오.
 딸의 출가, 아들 장가 전혀 알지 못하고서,
 으레 단장 가지고서 서울을 다녔었네.
 늘그막에 관직 하나 뜻밖에 얻게 되어
 넉넉한 녹봉으로 처자식 호강했네.
 세도가 찾아다녀 아침하지 아니하고
 되레 조정 간신배들 토주(討誅)를 도모해서,
 이제 또 유배당해 천 리 길 떠나서는
 하늘 끝에 이별하여 탄식이 절로 나네.
 당신에게 길고 긴 통환을 안겨 두어
 답장을 쓰려하나 말 많이 막히었네.
 이것은 본래 태어난 시기 나쁜 것이니
 하늘을 원망하고 날 원망치 마시구려.
 願自淑人歸我後 食不充腸衣不膚
 下以操井臼 上以奉舅姑

孰有孰無心算苦	纔過三十凋顏朱
更兼夫子喜交游	一歲在家一月無
嫁女婚男渾不知	輒持短策走京都
垂暮一官來意外	俸餘亦可贍妻孥
不向時人隨俯仰	却把朝奸謀討誅
今又爲流千里去	天涯離別堪嘆吁
致使卿卿長痛恨	欲作答書辭多拘
此乃本生時日惡	須怨蒼天莫怨吾

이기(李沂), 『늙은 아내에게 부치다(寄謝老室)』

이기의 본처는 여산 송씨(礪山宋氏)였는데 1877년(이기의 나이 30세)에 세상을 뜨면서 자신의 비녀를 새로 얻을 부인에게 주라는[遺囑鈿釵與後人] 유언을 남겼다. 이기는 아내의 죽음에 『悼亡 四絶』, 『哭內後自傷』 등을 남겨 아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 뒤 이기는 재취로 전주최씨(全州崔氏)를 맞아들였지만 독립운동가의辛酸(辛酸)한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⁵⁾

1907년(60세)에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암살하기 위해 자신회(自新會)라는 비밀 단체를 조직하였다가 거사의 실패로 7년형을 선고 받고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 위의 시는 가장과 남편의 책임을 직무 유기한 자신을 자책하며 아내에게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정의 사소한 일부부터 중대사까지 아내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밖으로만 돌아 집을 비웠다. 나라일을 한다는 핑계였지만 생계와 생활은 오로지 아내의 몫으로 전가되었었다. 대의(大義)에 대한 신념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가족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러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진심을 아내에게 토로했다.

5) 이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박종혁(1990), 『海鶴 李沂 研究: 韓末 激變期에 對應한 思想과 文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1]

누더기 무명 치마 정강이 못 가리고
 헝클어진 쭉대머리 빗질을 못하였네.
 땅 한 뼤이 있지 않고 집만 서 있었고,
 양식 어찌 항아리에 남았으랴, 빌려온 양식만 남아 있네.
 눈 쌓인 집에서 빨갛은 계수나무 아끼듯 했고,
 밭에서 배추 캔 것 절이지 못하였네.
 가난과 고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지만
 오히려 머리 돌려 날 편잔치 않는구나.

百結布裙不掩胫	參差蓬首未能梳
地無錐立家徒立	糧豈罨餘債但餘
雪屋秤薪如惜桂	葵園擷菜莫謀菹
艱難契闊元無比	猶不回頭徧謫余

[2]

생이별이 죽어서 잇는 것보다 어려운데
 십 년이나 초췌하게 빈 방을 지키었네.
 내가 물정 몰라 생계도 못 꾸리고,
 당신은 바쁘게 힘 다해 수고한 줄 알고 있네.
 밤중이면 물레 잡고 등불 아래 졸고 있고
 새벽에는 달빛 아래 다듬이질 하였네.
 소군처럼 가난한 집 따남은 아니었지만,
 가시나무 비너, 배치마에도 떳떳하게 대처했네.

生別難於死則忘	十年憔悴守空房
疏迂緣我謀生拙	勞苦知君殫力忙
夜把纜車燈下宿	晨春砧杵月中行
少君不是貧家女	荊布猶能處若常

이수필(李壽弼), 「늙은 아내를 생각하다(憶老妻 二首)」

남편의 신념으로 인한 아내의 희생만 속죄 대상이 아니었다. 생활인의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하게 한 것 또한 속죄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1] 고왔던 아내의 용모는 가난한 생활 탓에 형편없이 망가졌다. 호구(糊口)의 대책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매구마다 토로했다. 그러나 아내는 누구보다 심한 극빈(極貧)에도 자신에게 불평을 하지 않았다. 무기력한 자신과 자애로운 아내의 대비를 통해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은 배가되었다. [2] 작가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부재 속에 아내는 홀로 십년이나 가족들의 생계를 맡았던 모양이다. 5-6구의 밤중과 새벽에 일어나는 노동을 통해 아내의 그간에 있었던 어려운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소군(少君)은 포선(鮑宣)의 아내로 원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으나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는 몸소 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 부도(婦道)를 실천했던 인물이다. 소군을 제시하여 아내가 애초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으나 운명처럼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갔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2) 고생과 노고에 대한 고마움

[1]

몇 번이고 재단해서 먼 데 옷 보냈으니
 옷상자 열자 아내 얼굴 참으로 아련하네.
 먼길 약속 정녕코 따스운 바람 부는 길에 있을 터니
 먼 곳에서 끝내 오지 않는다고 원망마소.

幾度裁成寄遠衣 開緘顏面正依依
 佳期定在薰風路 莫怨天涯終不歸

[2]

가을옷 헤어지자 겨울옷 보냈는데

고향 생각에 마르고 피곤해 허리둘레 감소했네.

죽든 살든 멀리 떨어져 있던 약속한 말 지키려 했지만⁶⁾

서글퍼라 이제부터 온갖 일 잘못됐네.

着盡秋衣又臘衣 鄉心瘦困減腰圍

死死契闊會成說 惆悵從今萬事非

이의무(李宜茂), 「아들이 겨울옷을 가지고 왔는데 늙은 아내가 손수 꿰맨 것이었다.

감회가 있어서 깃대子持冬衣來 乃老妻所自縫紐也 感而有作」]

이 시는 이의무가 사화(史禍)에 휘말려 평안도 영변(寧邊) 어천역(魚川驛)에 유배되었을 때 쓴 작품으로 당시 나이가 쉰이었다. 옷과 음식을 준비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늙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다. 자의든 타의든 유배를 하게 되면 가장의 책무를 담당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아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옷가지를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고마움을 넘어 구체적인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아내의 옷을 받으면서 현실로의 귀환과 생활인으로서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다.

아침 햇살에 조금 따뜻해졌는데,

새소리가 처마 끝에 모여 있었네.

늙은 아내 나에게 술 권했으니

오늘 아침에는 한 번 즐길 만했네.

늙은 얼굴 오랫동안 초췌했으나,

몇 잔의 술 마시자 불그레해졌지.

6) 이 내용은 『시경』, 『패풍(邶風)』, ‘격고(擊鼓)’에 “죽든 살든 멀리 떨어져 있던 그대와의 약속 이루자고 하였노라.[死死契闊 與子成說]”라고 보인다.

한거하는 즐거움 비록 없지만,
 세상 영화 사모는 하지 않았네.
 당신은 맹광과 다름없는데,
 나는 백관 안 된 게 부끄럽구려.

晴旭送微暄	鳥聲集簷端
老婦勸我酒	今朝可一歡
衰顏久憔悴	數杯還發丹
雖無燕居樂	不曾慕榮觀
君應似孟光	媿我非伯鸞

정래교(鄭來僑), 『늙은 아내가 내 생일이라고 술과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기에 앞서 쓴 운자를 써서 감사하노래老妻以吾生朝 以酒炙勸之 用前韻以謝』

시기로는 생일, 회갑, 회혼 때 감회를 적은 시들이 많다. 부부가 함께 기념일을 맞으면서 느끼는 감회란 역시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없는 살림에 아내는 자신의 생일에 술과 고기를 챙겨주었다. 아내의 음식은 다름 아닌 남편에 대한 사랑이다. 정래교는 아내와 3살 차이였는데, 회혼례 때 지은 시가 한 편 더 남아 있다.⁷⁾ 아내가 아침이 밝자마자 생일상을 차려 올렸는데, 아내가 올린 술을 마시자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와 좌절이 위로 받는 것만 같았다. 아내를 맹광에 빗대어 추켜세우고 자신은 그에 어울리는 양홍(梁鴻)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룬 시이다.

한사(寒士)의 마누라는 약한 나라 신하 같아
 이미 기구한 운명을 평생토록 이르게 했네.
 노고도 아픈 데도 많지만 고칠 의술 없으니
 조물주의 생사 주관 한결같이 따르리라.

7) 『余多病早衰而年至七十六, 室人亦少余三歲而能夫婦偕老, 復逢丙子行醮之月, 用俗例設回昏宴, 此固人家稀貴事也, 豈平日所自期者, 禮成, 遂賦長律, 示座上諸君子, 丙子』

寒士妻如弱國臣 已教窮命到終身
 多勞多病醫無術 一聽化翁生死人

조병덕(趙秉惠), 『늙은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서(老妻病臥吟 三首)』

질병과 죽음은 선후의 문제이니 누군들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가난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타개될 수 있는 거라면, 질병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절망감이 더 강렬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처지의 아내를 약소국의 신하에 빗대어 절망감의 깊이를 더했다. 세 수의 연작시인데 나머지 시에서도 자신에 대한 자책이 주를 이룬다. 노년의 아내를 다룬 시들은 연작시나 장시 또는 율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절구시로는 주로 늙은 아내에 대한 소묘(素描)를 그릴 수는 있지만 아내에 대한 꺾긴한 정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는 아내의 질병에 대한 안쓰러움과 자책, 순명의 자세를 담았다.

3) 아내를 향한 호기와 배짱

늙게 되자 이 빠지고 머리는 벗겨졌지만
 밝은 시대에 송나라 소옹이 될 만하네.
 초하룻날 어리석음 팔았지만⁸⁾ 어리석음 그대로고
 입춘에 수명 나누어도 수명 오히려 성하였네.⁹⁾
 삼양 벌써 움직여서 태평한 운 열렸으니
 어리석은 아내! 재물은 풍성치 못함 탄식치 마오.

8) 선달그믐 밤의 풍속 중 하나이다. 송(宋)나라 오(吳) 지방의 풍속에, 선달그믐 밤에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바보 멍청이 사라. 바보는 천 께미, 멍청이는 만 께미요.[賣癡獸 千貫賣汝癡 萬貫賣汝獸]”라고 외치며 다녔다고 한다.

9) 의미가 분명치 않다.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입춘에 장수를 기리는 풍속이 있으므로 남에게 장수를 기원한다면 나의 수명에서 나누어 주는 게 된다. 둘째, 수명에 대해 점을 쳐서 분석해 본다는 의미이다.

누추한 거리에 궁한 선비 나 혼자만은 아니니
 팔을 베고 굶주려 누운 안회도 있었다지.

老來齒豁且頭童	堪作明時擊壤翁
元日賣癡癡未盡	立春析壽壽猶融
三陽已動運方泰	愚婦休嗟財不豐
陋巷窮儒非獨我	曲肱飢卧有顏公

김시온(金是橐), 「입춘이 지난 뒤 하루가 되었다. 늙은 아내가 식량이 떨어졌다고 하니
 시를 지어 뜻을 보였다(立春後一日 老妻告糧絕 詩以示志)」

김시온은 일찍부터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더욱 학문에만 힘썼다. 문장보다 경학의 연마에 정진했던 인물이다. 변변한 벼슬 한 번 말지 않았으니 생활의 궁색함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시는 호기와 자책이 교차된다. 떨어진 식량을 알리는 아내도 어렵게 말을 꺼냈겠지만 속 시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는 소옹(邵雍)을 내세워 시대와의 불화 속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호기를 보이고, 뒤에서는 안회(顏回)를 제시해서 극빈의 삶을 면피하고자 했다. 변명과 자책으로 일관되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오히려 격에 맞지 않는 호기를 보였으나 이것도 아내에 대한 미안함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추 밭은 오랫동안 거칠어졌으니
 아내는 마음이 어떡하겠나.
 밥상 들면 고기 없어 부끄러워서
 연못 보면 물고기 있는 것 부러워했네.
 실 다루어 손에 익숙하게 되었지만,
 뛰어난 탐내다가 눈 많이 소홀하리.
 고관의 부인이 되어 사치하기 보단
 끝내 어부를 따라 살아가는구나.

葵田久荒穢	內子意何如
舉案慚無肉	臨淵羨有魚
治絲手仍熟	貪雋目偏踈
與作安人侈	終隨漁父居

강필신, 「늙은 아내가 그물 짜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지어준다(見老妻結網 戲贈)」

시에 보이는 장난기는 시제에 있는 희(戲)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무겁고 집요한 응시보다는, 가볍고 예사로운 반응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다. 채마밭은 이미 거칠어져서 거들 게 없으니 물고기라도 잡을 요량으로 늙은 아내는 그물을 짜고 있다. 4구는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의 대책문(對策文) 가운데 “연못을 내려다보며 물고기만 부러워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그물을 짜는 것이 나을 것이다.[臨淵羨魚 不如退而結網]”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아내의 노동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노동 자체에 개의치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액면 그대로 아내의 노동에 대해 숙명이나 당연한 의무로 본다기 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미안함과 안쓰러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 갈면 글 읽기 어렵고 글 읽으면 발갈이 어려운데
 발갈이와 글공부를 누가 함께 한다 했던가.
 나라 위하느라 담과 집 꾸밀 만큼 한가하지 않고
 어버이 봉양하느라 처자식 향한 정을 못 돌봤네.
 책 보느라 항상 농사일 돌봄에 소홀했고
 성인을 배우느라 매번 세상 법도에 귀먹는 일 많았네.
 옆에서 내가 천하사람 즐거워 한 다음에 즐거워한단 걸 모르고¹⁰⁾

10) 범중엄이 『악양루기』에서 말한 “천하의 사람들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즐거워한 다음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고 쓴

호소하기를, “아무개 노인 근면으로 집안 일으켰소” 하네.

耕難爲讀讀難耕	耕讀誰言兼進行
爲國無間垣屋治	養親不顧妻孥情
看書恒小歸農事	學聖每多聳世程
榜不識余樂以樂	訴言某老勤家成

육병숙(陸炳淑), 「내가 살림살이를 등한히 여긴다는 말을 늙은 아내에게 듣고
느낌이 있어 읊대(聞老妻等閑治產言 感吟)」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1~2구에 있는 밭갈이(耩)와 글공부(讀)는 현실과 이상을 잘 대표해 준다. 이상을 좇다보면 현실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은 생활에 만족할지 몰라도 자연스레 의무를 등한시하게 된다. 다른 가족들은 고통 받기 십상이고 가정의 의무마저 전가당하기 쉽다. 3~4구에서도 역시 나라(爲國), 어버이 봉양(養親) 등 효와 충이라는 대의를 좇느라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집수리나 처자식에 대한 책임은 실종되었다. 생계와 가족에 대한 불성실함이 결코 대의를 좇는 지식인의 자기변명으로 용납될 수는 없다. 7~8구에서는 아내의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여 애쓰기 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아쉬움을 담았다.

4) 당신과 함께 세상을 떠나리

육십 년 세월일랑 순식간에 지났어도
복사꽃 화사한 봄빛은 신혼 때와 똑같았네.
생이별과 사별은 사람 늙기 재촉하건만
슬픔 짧고 기쁨 많아 성은에 감사하네.
이 밤에 목란사 소리는 더욱 좋고

것으로 보인다.

그 옛날 『하피첩』엔 떡 자국 남아 있네.
 헤어졌다 합친 것이 참으로 내 모양이니
 합환주 잔 남겨서는 자손에게 물려주리.

六十風輪轉眼翻	穠桃春色似新婚
生離死別催人老	戚短歡長感主恩
此夜蘭詞聲更好	舊時霞帔墨猶痕
剖而復合眞吾象	留取雙瓢付子孫

정약용(丁若鏞), 『회혼시, 병신년 2월 회혼례 3일 전에 짓다

[回烝詩 丙申二月回烝前三日]

회혼(回婚)은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맞는 예순 돌 되는 날로 회근(回烝)이라고도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건강해야만 가능할 수 있으니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만하다. 허명신(許命申)의 『늙은 아내(老妻)』에서는 “스무 살에 내 집에 시집 와서 올해 나이가 일흔네 살 되었네. 6년을 능히 지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회혼례가 이 해에 있을 터인데.[二十歸吾家, 今年七十四. 六年能過不, 重牢此年是]”라고 하여 남은 세월 건강하게 지내고 6년 뒤에 맞을 회혼례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또, 장재한(張在翰)은 막내아들의 죽음을 당한 뒤에 회혼례를 맞게 된 참담한 심정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¹¹⁾

다산은 1836년 2월22일 양주의 소내에서 세상을 떴다. 부인 홍혜완(洪惠婉)과의 회혼일이었다. 결혼할 때 다산은 15살이었고, 부인은 16살이었다. 18년을 떨어져 살다가 18년을 다시 함께 살았지만, 18년의 유배를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대로였다. 『沙坪別』, 『蛾生』, 『寄內』 등의 시들에는 다산의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의 사랑은 하피첩과 합환주 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산은 이 술잔에 『回烝宴壽樽銘』을 남겼다.

11) 『余之回烝在甲午十月十三日而年前遭季子之慘 其寡妻孤幼 煢然在眼前 不忍設酌對歡於當日 故九月十五日 送老妻 歸故山而朝餞于驛路 甚悵然也 歸而識懷 五首』.

함께 살다 함께 죽다니 참으로 좋은 인연일세

성남에 함께 묻힐 때에 친족들 다 모였네.

목숨은 하늘에 달렸으니 자위해야 하겠지만

애달프다 집에 계신 늙은 모친은 어찌할까.

同生同死是良因 同葬城南會族親

有命在天應自慰 可憐堂上老夫人

이색(李穡), 『유경휘(柳景輝)가 자기 부인과 함께 병이 들더니 동시에 죽어서

오늘 도성 남쪽에 똑같이 묻혔다.[柳景輝與室俱病 同時亡 今日同葬城南]

부부가 함께 늙어서 같은 날 세상을 떠나는 일만큼 축복도 없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보다 세상에 남은 이가 감당할 슬픔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가 좋고 지내는 세월이 많다면 더더욱 상실의 아픔을 감당키 어렵다. 위의 시는 나이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부의 동사(同死)를 다루고 있다. 홀로 살아가실 어머니가 마음이 쓰이긴 하지만 그들의 죽음만은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명실상부한 동사(同死)의 기록이 나온다. 판서 서대순(徐戴淳, 1805~1871)과 그의 부인 홍씨(洪氏)는 같은 해, 달, 날, 시간까지 똑같이 태어났다. 평소에 매우 금슬이 좋아서 같은 날 함께 죽자고 맹세했는데 1871년 가을에 서대순이 먼저 죽었고 다음 달에 부인도 따라서 죽었다. 병의 증세도 같았고 같은 땅에 묻혔다. 이유원은 “명을 맡은 절대자가 그 소원을 살피고 특별히 베푼 것일까. 공과 같은 부부는 배필의 정의(情誼)가 참으로 중하다 할 만하다.”라고 평하고 있다.¹²⁾ 사실 동사란 한낱한시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배우자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 시차를 두고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

12) 이 이야기는 『승정원일기』(고종 8년 신미(1871) 11월 25일)에도 나온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 판서 서대순(徐戴淳)의 처 정경부인(貞敬夫人) 홍씨(洪氏)는 남편이 사망하는 슬픔을 당한 때로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다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의연하게 남편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행실은 실로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절개를 지닌 사람이 있는 마을을 정표(旌表)하는 것은 왕정(王政)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니, 특별히 정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베풀어 풍교를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로 곡기를 끊어 죽음을 선택하는 자진의 형태를 말한다.

[1]

인생의 부부란 건 천륜의 중함인데
 늙어서 의지하니 이보다 친함 없네.
 한 번 죽음 비록 한날 죽기는 어렵지만,
 이별 뒤 홀몸으로 남는 것 어찌 견디랴.
 人生夫婦重天倫 到老相依此莫親
 一死縱難同一日 那堪別後獨留身

[2]

처음 결혼 하던 때 어렵듯이 생각하자니
 괴롭고 즐거웠던 여러 인연 꿈과 같네.
 술 차린들 누가 유씨 부인의 축원을 하랴.¹³⁾
 흰머리로 술에 취해 옛 초가집에 누워 있네.
 依依念到結縭初 苦樂諸緣一夢如
 具酒誰爲劉婦祝 白頭醉臥舊茅廬

[3]

빙산이 가까이 있는 옛 성 모퉁이였는데
 이번에 가면 해로가 재촉함 돌이키기 어렵네.
 새벽달이 창 앞 매화가지 그림자 비추니
 향기 나는 혼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네.
 氷山一髮古城隈 此去難回薜露催
 梅枝曉月窓前影 疑是香魂忽到來

13) 유령(劉伶)은 죽음을 각오하고 술을 마시자 그의 아내는 울면서 간하기를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몸을 잘 돌보는 방도가 아니니 반드시 끊으십시오.”라고 하였다. 『晉書 卷49 劉伶列傳』

선달 초10일은 늙은 아내 정부인 진주김씨가 세상을 떠났으니 결혼한 정과 한 몸이 된 우리가 지금 51년째 되는 해이다. 아들 셋이 있고 손자 다섯이 있으니 무슨 남은 원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시를 지어 위로를 한다면 비록 천 수나 만 수의 시를 짓더라도 오히려 한스러움을 다할 수는 없다. 종질(從姪) 동직(東稷)이 먼저 세 편의 절구를 보내서 혼자 있는 회포를 위로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감정을 누르고 붓을 달려 화답을 하고 멈추었다.¹⁴⁾

신학조(辛鶴祚), 『늙은 아내와 곡하며 이별하다(哭別老室(三首))』

신학조의 유별난 아내 사랑은 여러 시에 남아 있다.¹⁵⁾ 아내를 잃은 아픔을 적은 도망시(悼亡詩)는 상처(喪妻)의 고통을 당한 문인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노년에 아내에게 많은 시를 남기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진진한 도망시를 남긴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시는 혼자 남겨진 애절한 상실감이 주된 내용을 채우고 있다.

4. 결론

한 남자와 여자가 강렬한 끌림과 열정으로 부부로 맺어지지만, 사는 내내 언제나 그만큼의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한 강렬한 자장(磁場)은 어느새 정서의 공유로 옮겨 간다. 하지만 오랜 세월 희노애락을 함께 지나고 견디는 가운데 생겨나는 연대의식과 동지애는 그 어떠한 사랑보다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어 준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그래도 부부는 여전히 아름다운 이름이고, 아내는 여전히 아픈 이름일 수밖에 없다. 늙은 아내(老妻)를 다룬 시는

14) 臘月初十日老室貞夫人晉州金氏別世，結縭之情，配體之義，今爲五十有一年矣。有子三人有孫五人，有何餘寃而若以詩爲慰，則雖千萬首有不能盡其恨也。從姪東稷先寄三絕以慰我幽獨之懷。故仍抑情走和而止。○ 三首

15) 『喜老室自杜陵還家』, 『季秋老室往杜陵女家』, 『初冬答杜陵留老室書』, 『夜坐戲贈老室(二首)』, 『以冬眠不覺曉戲贈老室(三首)』, 『四月九日卽老室周甲也 步澆花道人韻 以叙衰年偷情之有別焉』

연원을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 특정 작가군에 의해 제한적으로 창작된 것도 아니다. 늙은 아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정서는 역시 사랑과 고마움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먼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속죄를 들 수 있다. 함께한 세월들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만족스러웠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월의 굵이굵이 모든 순간 같은 자리를 지켜준 배우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이유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생활인의 책무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음으로 고생과 노고에 대한 고마움이다. 무기력한 생활인의 태도는 아내와 자식들을 세상의 고초와 고난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나 가장 노릇을 대신 떠맡아야 하는 아내에게 그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부부란 한쪽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다른 한쪽이 감당할 무게는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보통 유배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기적으로 생일, 회갑, 회혼 때에 지어진 시들이 많다.

또, 아내를 향해 호기와 배짱을 보이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양새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에 변명과 자책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드러내며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슬픔이다. 중년 이후에 겪을 가장 큰 아픔으로는 상처(喪妻)가 손에 꼽힌다. 부부가 함께 지낸 세월이 길면 길수록 상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부모는 자식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기 마련이고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래도 끝까지 곁에 남아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다. 세월의 모든 성상(星霜)을 겪은 노부부의 모습은 그것 자체로 인생의 훌륭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죽음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노부부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 참고문헌

김경미(2012), 『家와 여성』, 여이연.

류정월(2014), 『선비의 아내-조선 여성들의 내밀한 결혼 생활기』, 역사의아침(위즈덤하우스).

이종묵(2011), 『부부』, 문학동네.

박동욱(2014), 『가족-세상에 다시없는 내 편』, 태학사.

박종혁(1990), 『海鶴 李沂 研究: 韓末 激變期에 對應한 思想과 文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Images of Elderly Couples Observed in Chinese Poems

– Focused on Elderly Wives –

Pak, Dong-uk*

Unexplainable impression on the elderly couples is the awe and respect on the time and events which they passed through. This paper investigated the images of the elderly couples observed in Chinese poems based on the poems describing the elderly wives.

The description which was observed most frequently in the poems was the expiation on the times they passed through. The description following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description was appreciation on hardship and endeavor. Furthermore, the elderly men showed gallant spirit and audacity to their wives. The last one was sorrow on the death of their wives.

It is natural that parents leave this world before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 just manage their own families. However, it's only a spouse who will stay together until the end of the life. The images of the elderly couples experiencing all kinds of time and tide in this world will be the great textbook for life. The life of the elderly couple who can stay together for ever by death suggests a lot of things to us in these times as well as in the past.

Key words: Elderly Couples, Couples, Wives, Death of a Wife, Spouse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E-mail: sanwoon@hanmail.net